

2024. 6. 23.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잠언 Proverb 2:12-15

제목: 악한 자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는 지혜

(표준새번역) 2:12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ESV) 2: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2:13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2:13 who forsake the paths of uprightness to walk
in the ways of darkness,

2:14 그들은 나쁜 일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2:14 who rejoice in doing evil and delight in the
perverseness of evil,

2:15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2:15 men whose paths are crooked, and who are
devious in their ways.



지난 주간, 제주도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중국인 아이 사진이

유명해 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 친
엄마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 여름에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이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비판과 염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선진국 프랑스 파리의 거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
배설물들로 악취와 더러움의 도시라는 여행 리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며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깨끗한 길거리와 그보다 더 깨끗한 공용
화장실, 도심을 흐르는 맑은 강과 하천들, 쓰레기나
악취가 없는 대중교통 시설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한 부러워 합니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에서 기분 좋아하는 것으로는 화장실이 깨끗해 지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치워야 깨끗해 집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더럽히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다면, 점점 더 더러워 질 것이며, 그 더러움에 익숙해져가고, 그렇게 적응하고 나면 그 더러움은 ‘문화’가 됩니다. 일주일 머리 감지 않고, 한달 몸 씻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한명일 땐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수백명, 수만명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삶의 방법(길)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 2 장은 아버지가 아들(자녀)에게, 혹은 스승이 아끼는 제자에게 인생 교훈을 들려주면서, 12a 절,

‘악한 사람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2:12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
(ESV) 2: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악한 자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는 지혜

12-15 절에서 우리는 악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
두가지 지혜를 발견합니다. 첫번째 지혜는,

✓ 악한 행동은 악한 길을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도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물론 선한
사람도 다 압니다. 사탄도 다압니다. 즉,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미움, 시기 등)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살인죄라고 요일 3:15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성경, 특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선택이라면, 사랑과 대조를 하고 있는 ‘미워하는 것’도 행동이며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듯이 여기서 말하는 ‘미움’도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며, 말이며, 눈빛이며 선택입니다.

(표준새번역) 요한일서 3:15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ESV) 1 John 3:15 Ever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abiding in him.

그래서 이어지는 16 절,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내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내 땀을 기꺼이 흘리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공간을 함께 하고, 목숨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1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 John 3: 16 By this we know love,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others.

사랑이 감정,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며
 선택이라면, 미움도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죄로
 확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 5:21 절, 살인 이
 심판받을 죄가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5:21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ESV) Matthew 5:21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You shall not murder;
 and whoever murders will be liable to judgment.'

더 나아가 22 절, 화내는 것(행동), 욕하거나
 모욕하는 것(행동)이 심판 받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미움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5: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러 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5: 22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judgment; whoever insults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the council; and whoever says, 'You
 fool!' will be liable to the hell of fire.

관계가 꺾고럽고, 화가나고, 미움이 마음에 생겨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서 눈빛으로
 업신여기고, 행동으로 무시하고, 말로 모욕할 때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잠언으로 돌아와, ‘악한 사람의 길’은 악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어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악한 행동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악한 행동은 악한 길을 만듭니다. 악한 길이 만들어지면, 고민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한 길이 만들어지면, 너도 나도 따라 행동합니다. 악의 ‘문화’가 만들어 집니다. 악의 길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도 못느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데!”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야!”

비가오고 물이 흘러 ‘물길’이 만들어 지듯이, 악한 행동이 모여,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악한 길’을 만듭니다.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표현되는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식’이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이건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 ‘순종’입니다.

표현되는 악한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반복되는 악한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악한 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두번째 지혜입니다.

✓ 여호와 지혜가 나를 건져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잠언, 특히 2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악한 우리가 ‘악한 행동’, ‘악한 길’을 버리는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 절,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은 어두운 길(죄의 길)입니다.

2:13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2:13 who forsake the paths of uprightness to walk in the ways of darkness,

14 절, 악한 길은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처음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악한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재미 있고,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물 길이 만들어질 때처럼.

2:14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2:14 who rejoice in doing evil and delight in the perverseness of evil,

15 절, 악한 길은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지만,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15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2:15 men whose paths are crooked, and who are devious in their ways.

잠언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바른 길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12 절, 악한

사람의 길에서 우리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달라서
 분별하기 어려운 그 악한 행동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지혜'입니다.

(표준새번역) 2:12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ESV) 2: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잠언 2 장에서 지혜는 (6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지혜를
 주십니다. 2 장 1-5 절은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강조하고는 그 지혜는 여호와께 있다고 알려 줍니다.

잠언 2:6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Proverbs 2: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절,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게 하시며, 방패가 되어
 악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 2:7 정직한 사람에게에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에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Proverbs 2: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여러분, 악한 길, 악한 행동을 벗어나는 것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행동, 그 악한 길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공기로 가득차 있는 유리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를 어떻게 다 빼낼 수 있을까요? 틈을 다 막고 공기 펌프로 병 속의 공기를 다 빼낼 수 있습니다. 병 속에 만드어진 진공 상태는 ‘압력’이 되듯이,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비어있는 우리 마음은 죄와 악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공기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 병 속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공기를 빼는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차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던
죄가 밀려나가고, 악한 행동이 밀려 나가고, 악한
생각이 밀려 나갑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신앙 서적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삶(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채 우십시오.

끊어야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멈출 수 없고 자꾸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악한
길이 내 삶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을 멈추려는
시도보다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습관,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기꺼이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마음, 나의 미래, 나의 공부, 나의 생활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내 속의 악한 생각이 밀려나고, 나의 악한 행동이 멈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